

# 한국어에 나타난 유교문화적 요소 일고찰

선저이 꾸마르\*

**Sanjay Kumar, Confucian Cultural Elements and its Appearance in Korean Language.**  
The social fabric of Korea has been influenced by Confucianism for a long period cutting across culture, art, religion, law and customs. The Confucian cultural elements have infused with the contemporary Korean life and it has been frequently appearing in modern Korean language. Confucian thoughts and expressions deeply rooted in the social hierarchical ethics are interwoven with the Korean tradition. They are easily identifiable in the Korean Language. Many scholars have pointed out that the historic Confucian scriptures written in Classical Chinese passed on through tradition are traceable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language. These claims attest the idea that Confucian cultural elements have profound connections with the Korean everyday life. Therefore, this work emphasizes that how Confucianism elements are intricately entwined with the Korean society. It focuses to identify Confucian cultural elements used in the various expressions of family culture, ranking culture and culture of collectivism in Korea. Moreover, this paper also identifies Confucian elements used in the appellation and expressions in context of Korean proverbs and greetings.

*Key words: Korean Language, Confucianism, Collectivism, Ranking Culture, Family Culture*

## 문제제기<sup>1</sup>

한국어는 한국사회에서 한국인의 사고를 표현하는 도구이다. 한국인들의 정신 속에는 한국어의 문법규칙이 내면화되어 있다. 또한 한국어는 한국인의 사고 체계 및 사상과 밀접한 상관성을 지니고 있다. 유교<sup>2</sup> 혹은 유학 사상은 이러한 사고 체계 중 하나이며, 자기 수양을 통해 도덕적, 사회적 조화와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다. 유학은 한국의 정치, 사회,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sup>3</sup> 이런 점 때문에 한국인의 정신과 행동의 근원이 유교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음은 당연하다. 이와 같은 유교 문화적 요

\* 강원대학교 박사과정

<sup>1</sup>본 논문은 필자가 한국유학생활에서 겪은 경험과 관심을 주제로 하였고, 한국어와 한국의 유교문화의 관계라는 Agenda를 통해 고찰하는 것임을 밝힌다.

<sup>2</sup>유교는 중국 춘추시대 공자(孔子)에게서 비롯된 철학사상이며, 동아시아의 정신세계를 지배한 역사 문화적 요소 중 하나이다.

<sup>3</sup>이정규(2001), 「유교의 정(精)의 개념이 한국고등교육 조직문화에 끼친 부정적 영향」,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vol. 19, No.1: 195쪽; 계재광, 「유교 문화가한국교회 리더십 형성에 미친 영향:유교의 권위주의 영향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한국실천신학회』 2010년봄호:85쪽; Seung B. Kye (2008), 「Confucian Perspectives on Egalitarian Thought in Traditional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vol. 12, 57쪽 참조.

소는 한국인의 생활에서 과거형뿐만 아니라 현재형으로도 드러난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교적 사유가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언어양식 그리고 생활방식의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유교사상은 한국인들의 정신문화 속에 살아 있는 문화적 심성을 반영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유교문화적 요소를 찾아 분석하려고 한다.

문화와 언어의 상관성에 관한 현실적인 문제의식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체로 유교문화가 한국어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로써 유교문화와 한국어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주명애(2011)는 한민족의 가치관념과 사고방식, 의식구조와 행동양식 등의 제반 영역 및 유교문화와 그를 반영한 한국어를 고찰하는 데에 초점 맞추고 있다. 전혜영(1998)은 특정한 한국어 형태의 사용방식을 통해 한국문화를 읽어낼 목적으로 호칭어와 다른 몇 가지 한국어의 쓰임을 연구해 유교문화의 특성과 양상을 살펴보고 있다. 또한 Tomasz Sleziak(2013)는 한국생활이 현대화되는 과정에서의 문화, 교육, 정치와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유교문화의 영향을 외국인의 시각으로서 연구하였다. 그 외의 연구 경향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에서 유교문화를 강조한 것에 목적을 둔 연구가 많았다.

본고는 한국사회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한국어 표현과 유교문화와의 관련성을 외국인의 시각에서 고찰할 것이다. 한국어에 나타난 유교문화적 요소의 고찰은 의미가 있으며, 이것은 한국의 가족문화에서 쓰이는 호칭과 유교문화의 연관성 및 집단문화와 관련된 한국인의 주된 언어 표현을 통해 밝혀질 것이다. 또한 한국의 가족, 집단, 서열에 내포된 유교문화의 다양한 영향과 예절 표현에 초점을 맞추어 언어문화학적 관점에서 유교 문화적 요소를 검토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그리고 한국인이 사용하는 다양한 유형의 호칭과 유교문화와의 연관성 및 인사법, 한국속담 등에 나타나는 유교문화와 그 배경을 분석하려 한다.

황한영은 그의 논문에서 문화와 언어의 상관관계를 설명하였는데, 언어의 습득 과정을 문화의 이해 과정으로 보고 있다. 그것은 언어가 문화를 담는 그릇일 뿐 아니라 그 언어에 해당하는 문화를 계승 발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한국어는 한국문화를 담는 그릇이다.<sup>4</sup>한국어는 한국인의 삶에 의사소통과 여러 상호작용 과정에

<sup>4</sup>황한영(2013), 「유교 문화가 성씨·이름에 끼친 영향 연구」 『한남대학교 한남어문학회』, 제 37 집: 271 쪽; Robinson-Stuart & Nocond의 주장, “언어와 문화의 관계

깊이 스며들어 있다. 또한 유교문화는 한국어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데 영향이 컸다. 필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드러나는 한국어의 실태를 조사해 유교문화적 요소를 고찰하고자 한다.

한국어에는 불교, 기독교, 무속 신앙 등 여러 종교에서 유래된 언어표현들이 있다. 가령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나 ‘인연을 맺다’ 라는 표현은 불교문화의 영향에서 유래된 표현이다. 무속신앙과 한국의 도교도 한국어에 끼친 영향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유교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인다. 특히 유교문화는 사회 제도를 구성하거나 일상 생활의 윤리를 지배하는 특성이 강한 탓에 일상 언어에 반영된 부분이 훨씬 많았다.<sup>5</sup>

한국어와 유교문화의 상관성을 논의하는 것은 앞서 소개한 대로 유교문화적 특징이 한국어 표현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호칭과 인칭 대명사, 존칭 등 다양한 언어표현에서 이와 같은 실태를 발견할 수 있다.<sup>6</sup> 한국은 다양한 외래종교와 문화의 유입이 있었다. 이 가운데 유교는 여전히 살아 숨 쉬는 문화적 기능을 한다. 특히 윤리와 도덕적 실천을 중시하는 유학사상은 한국사회의 가족주의, 집단주의, 서열주의 등에 잘 드러난다.

본고의 목적은 한국의 가족주의, 집단주의, 서열주의<sup>7</sup> 속에 깊이 배어 있는 한국어문화 가운데 바로 유교의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쓰이는 다양한 한국어 표현 중에서 호칭, 존댓말, 반댓말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유교문화적 요소를 살펴보려 한다.

## 가족문화의 유교 개념과 한국어

문화는 그 탄생과 함께 외부로 확산되는 특징이 있다. 동아시아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한 사상은 유학사상이다.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유교를 받아들였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전반에 그 영향력이 컸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 유교의 영향은 생활문화의 상당한 부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도 한국인이 중국보다 공자를 숭상하고 유학을 공부하는 데서 잘 파악할 수 있다.

는 불가분이며 언어의 습득은 곧 해당언어권의 문화습득과 직결되어 있다” 를 참조.

<sup>5</sup>국제한국학회(1999), 『한국문화와 한국인』, 서울: 사계절, 239-240 쪽.

<sup>6</sup>위의 책 같은 면; Lucien Brown (2011), 『Korean Honorifics and Politeness in Second Language Learning』, John Benjamins Publishing, 22 쪽 참조.

<sup>7</sup>손미성(2010), 「한국 문화 교육의 실태 및 지도 방안: 유교문화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8 쪽.

현대는 유교를 통치 기반으로 삼았던 조선시대의 전통을 상당 부분 계승한 만큼 문화 전반에 걸쳐 유교적 요소가 상존할 수밖에 없다. 자신의 근원에 대해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고자 하는 ‘보본의식(報本意識)’의 영향으로 여전히 조상을 숭상하고 추모하는 것을 보아도 그러하다. 가령 ‘사사여사생(事死如事生)’, 즉 죽은 사람을 산 사람처럼 대하라는 가르침을 따라 제사를 지낼 때도 ‘현고학생부군신위(顯考學生府君神位)’라는 지방을 사용한다. 장례를 지낼 때도 전통적인 상복을 착용한다. 이러한 점은 조선시대와 별로 다르지 않다.

제례 문화는 조선시대의 유교사상에 의해서 뿌리 깊게 정착이 된 덕분에 오늘날까지도 한국인의 생활과 언어 속에서 과거의 형식과 절차가 그대로 남아 있다.<sup>8</sup> 특히 일상어와 구전 가요도 그렇지만 한국속담에서 제사문화와 관련된 요소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표-1>조상숭배와 관련된 말

떡 본 김에 <b>제사</b> 지낸다.
가난한 집 <b>제삿날</b> 돌아오듯.
벼르든 <b>제사</b> 에 물도 못 떠 놓는다.
가을에 못 지낸 <b>제사</b> 를 봄에는 지낼까?
먹지도 못하는 <b>제사</b> 에 질만 죽도록 한다.
엿볼에는 마음이 없고, <b>젓밥</b> 에만 마음이 있다.

조선의 유교적인 가르침을 따라 돌아가신 조상에게는 예를 다한다면 살아 계신 어른에게는 효를 다한다. 최치원이 쓴 난랑비(鸞郎碑) 서문에서 “집에 들어온 즉 효도하고 나아간즉 나라에 충성하니 그것은 공자(노사구)의 교지와 같다(且如入則 孝於家 出則 忠於國 魯司寇之旨也),” 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서문의 의미를 파악해 보더라도 옛날 신라시대부터 한국의 가족주의에서 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유교는 기본적으로 인(仁)이 핵심개념이며, 효(孝)는 다름아닌 인(仁)에서 출발한다. ‘효(孝)’와 ‘제(悌)’의 개념으로 실천되는 한국의 가족주의는 한국문화의 근본적 바탕이라고 할 수 있다. “효도는 백행(百行)의 근본이다”라는 말은 한국인이 일상적으로 듣는 말일뿐더러

<sup>8</sup>강구윤(2010), 「선비문화」 『남명학연구원』, 18권 0호: 104쪽; Ho-min Sohn (2006), 『Korean Language in Culture And Society』, University of Hawaii Press, 13쪽 참조.

한국인의 윤리 교육이다.<sup>9</sup> 효는 무엇보다도 한국사회에서 내 가족 우선주의로 나타난다. 엄밀한 의미에서 유교는 개인이란 존재보다는 사회적 관계를 중요하게 설명한다. ‘나’는 항상 누구의 아들이나 딸 또는 아버지나 어머니로서 존재한다. 이처럼 한국의 가족주의는 개인이 아니라 전체와 그 전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중요시한다<sup>10</sup>. 일반적으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며 특히 효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중시한다. 여기에서 어머니는 아버지의 아내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관계가 되지만 딸은 사실 열외이다. 이렇듯 남아선호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효는 부자 간의 쌍방적인 관계가 아닌 것으로 정확히 말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다. 윗사람의 의무보다는 아랫사람의 의무를 강조하는 것이다.<sup>11</sup> 이러한 사회 현상은 옛날보다 많이 약해졌지만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다. 효의 중요성과 존재성은 한국속담에 잘 나타난다.

<표-2>” 효” 와 관련 속담

효자는 앓지도 않는다.
효자 가문에 충신 난다.
정성이 있으면 한식에도 세배 간다.
효성이 지극하면 들 위에 풀이 난다.
효자 끝에 불효 하고 불효 끝에 효자 난다.
있을 때 잘 해라.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혈통을 중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가문을 중시하는 가족주의로 자연스럽게 발전하게 된다. 가족 우선주의는 한국문화의 중요한 특징이다. 한국 사회의 거의 모든 양상이 가족 우선주의를 반영하듯 한국어에도 이런 현상이 잘 드러난다. 유교의 전통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를 중시한 다음으로 아들들 간의 질서도 강조했다. 이것을 한 글자로 하면 제(悌)이다. 제란 형과 아우의 관계이다. 유교는 여성에 대한 사상이 미약한데 그 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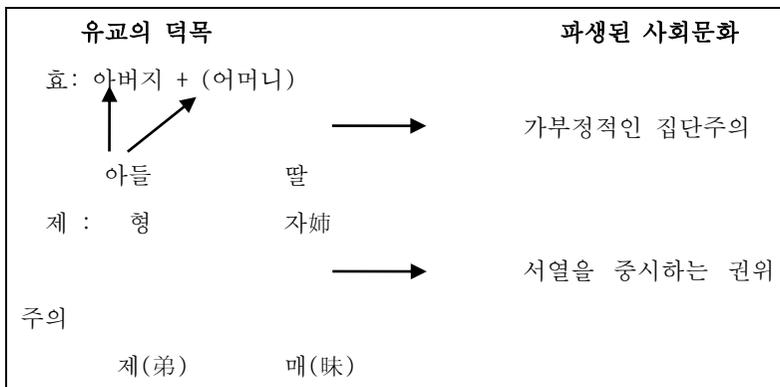
<sup>9</sup>江原日報(2008.05.28 일자)6면.

<sup>10</sup>송재룡(2014), 「유교의 문화·언어 습속과 권력 현상: 존·비어체계의 ‘문화적’ 권력성을 중심으로」, 『사회사상과 문화』, 제 29 집: 299 쪽; 최영진(2014), 「한국 사회의 유교적 전통과 가족주의」, 『사회사상과 문화』, 제 29 집: 199 쪽;

<sup>11</sup>최준식(1997), 『한국인에게 문화는 있는가』, 서울: 사계절, 171 쪽.

제란 형에 대한 아우의 공경심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한국인의 서열 중심주의가 들어 있고, 항상 나이를 고려하여 공경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 있다. 유교 사회는 일반적으로 연장자 중심으로 짜여 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모시는 것인 유교 사회의 불문율이며 그에 따른 상호간의 섬김과 섬김을 받는 것을 중시한다. 이러한 점은 오륜의 ‘부자유친’<sup>12</sup>과 ‘장유유서’<sup>13</sup>가 중요한 덕목임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표-3>서열을 중시하는 권위주의<sup>14</sup>



한국인의 혈연 중심주의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다. 집이라는 한 가족 단위를 중심으로 모든 기초 활동이 이루어진다. 길에서 모르는 사람을 부르는 경우에도 ‘아저씨’, ‘아줌마’라는 호칭을 쓴다. 조금 친해지면 곧 ‘형님’, ‘언니’라는 친족 개념의 호칭을 사용한다. 학교에서도 고학년 선배를 부를 때도 언니, 형이라고 한다. 이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온 사회의 근본이 가족인 것이다. 그런 탓에 한국 사회에서는 가족 개념의 용어가 흘러 넘친다. ‘한지붕’, ‘한가족’, ‘한술밥’ 등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 집(家)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가리키는 뜻이다. 그러한 용어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4> 개인보다 집이 우선되는 말<sup>15</sup>

가엄 家嚴	가례 家禮	가계 家計	가사 家事
가친 家親	가계 家系	가내 家內	가문 家門

<sup>12</sup>윤무학(2006), 「선진(先秦) 유가의 오륜과 부자 윤리」, 『동양철학연구회』, 47권 0호: 248쪽.

<sup>13</sup>李光奎(1998), 『한국 가족의 사회인류학』, 서울: 집문당, 45쪽.

<sup>14</sup>최준식(2000), 『한국인에게 문화가 없다고?』, 서울: 사계절, 34쪽.

<sup>15</sup>최재석(1965),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민음사, 48쪽.

가훈 家訓	가제 家祭	가승 家乘	가전 家傳
가산 家産	가보 家寶	가정 家庭	가신 家神
가정 家政	가풍 家風	가규 家規	가헌 家憲
가장 家長	가솔 家率	가구 家口	사가 査家
가첩 家牒	가보 家譜	가묘 家廟	외가 外家
양가 養家	절가 絶家	처가 妻家	종가 宗家
혼가 婚家	대소가 大小家	폐가 廢家	작은 집
분가 分家	상가 喪家	큰집	

위에서 언급한 모든 용어의 유래는 가족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것은 곧장 ‘우리주의’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한국어에는 전통을 철저히 답습한 개념과 실천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매개체들이 포함되어 있다.

### 한국의 유교 집단주의와 한국어

홉스테드가 65 개국(53 문화권)을 표본으로 한 조사 따르면, 한국은 집단주의문화로 분류된다 (Hofstede, 1980, 1983)<sup>16</sup>. 한국사회는 집단 문화라는 특징이 현저하게 나타난다. 집단문화에서는 충성과 복종을 기대하며, 이러한 점은 유교사상에 근본을 둔다. 유교사상은 군신(君臣), 부자(父子), 부부(夫婦), 붕우(朋友) 사이에서 존중할 도덕지침과 그 가치를 강조한다. 특히 모든 관계 속에서 충성심 또한 매우 강조한다. 이것은 각 조직 내에서 서열에 따라 정확하게 행사가 된다. 이러한 서열문화와 서열에 따른 충성심은 ‘유교적 집단주의’라고 하는 중요한 특징이 될 것이다.

한국 문화는 ‘가(家)’를 중심으로 하는 집단 문화를 가지고 있다. 한국 문화의 중심을 유교 문화로 본다는 것은 혈연 관계로 구성된 ‘가(家)’ 중심의 상하 수직적인 대인 관계가 사회적으로 확장되어 서열 의식이 분명한 사회를 이루고, ‘가(家)’ 밖의 집단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한국어에서는 혈연 집단주의에 대한 가치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sup>17</sup> 한국어의 사용에도 공식적인 단위가 개인이 아닌 집단인 경우가 많다. 집단의 성원은 상하의 서열로 종종 구별된다. 이것은 ‘나’라는 인격을 가족이라는 집단 속에 매몰시키는 것이며, 결국에 가서는 가족보다 더 큰 사회집단이나 국가사회에 대한 일체감이나

<sup>16</sup>김주엽(2004),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Yonsei Business Review』, vol. 41, No 1(통권 제 78 호: 171 쪽).

<sup>17</sup>국제한국학회(1999), 『한국문화와 한국인』, 서울: 사계절, 239-240쪽; Kyong Ju Kim(2007), 『The Development of Modern South Korea: State Formation, Capitalist Development and National Identity』, Routledge, 51쪽 참조.

충성심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띤다.

마을이나 가족과 같은 좁은 집단으로 내려갈수록 강한 소속감과 일체감을 드러내며 이보다 큰 기능집단이나 지역집단은 성격을 조금 달리 한다. 강한 소속감과 일체감을 가지는 집단 공동체에서 구성원 개인의 가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며 개인들 역시 ‘나’ 와 ‘공동체’ 를 구분하고자 하는 의식도 미약하다. 자기가 소속된 공동체로부터 미분화된 생활을 영위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나’ 라는 말보다 ‘우리’ 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는 언어 습관<sup>18</sup>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이 같은 공동체 의식은 ‘우리 국가’ 보다는 ‘우리 사회’, ‘우리 사회’ 보다는 ‘우리 집’ 으로 내려갈수록 강하다.<sup>19</sup>

한국인은 ‘우리’ 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이 때문에 용법이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도 남발되는 경우가 있다. 가령 누구를 소개할 때 “우리 이길동 씨는...” 이라고 하면서 맨 앞에 ‘우리’ 라는 말을 집어넣는다. 일종의 친근감과 연대감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우리’ 란 말은 아주 흔하게 발견이 된다. 가령 우리 집, 우리 남편, 우리 마누라 등이 그러한 경우이다. ‘우리’ 를 좋아하는 것은 그 만큼 집단의식이 강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렇지만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예외라 하더라도 우리 남편, 우리 마누라는 사실상 이해의 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정확한 의미는 내 남편, 내 마누라라고 해야 한다. 남편이나 아내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사람이 늘 ‘우리’ 를 쓰는 이유는 개인보다는 가족이나 친척, 혹은 직장 공동체와 같은 집단을 우선시하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인의 집단주의 성향을 가장 나타내는 말 중에 하나는 술자리에서도 나타난다. 술을 마실 때 하는 건배사 중 ‘우리가 남이 가’ 라는 말은 우리는 한통속, 즉 한집안이라는 뜻이며, 우리끼리는 뭉쳐서 모든 일을 해나가고 잘 지내자는 의미로 지극히 집단적 이기성을 띤 발언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곧 내집단과 외집단을 명확하게 나누는 집단주의 성향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말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집단주의 성향을 결정하고 그 주된 내용을 이루는

<sup>18</sup>Joh Jong-ho(2002), 「A dilemma in Moral Educ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limitation of Individualistic Cognitive Approaches」, Journal of Moral Education, vol. 31, Issue-4: 300 쪽; 이상억(2008), 『한국어와 한국문화』, 서울: Sotong; 김종록(2008), 『외국인을 위한 표준 한국어 문법 어』, 미시간 대학교: 박이정, 89 쪽.

<sup>19</sup>최재석(1965),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서울: 민음사, 181 쪽.

요인에 바로 ‘유교’ 라는 가족주의가 있다. 따라서 유교를 떠나서 한국 사회를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sup>20</sup>

한국인은 자기가 속해있는 집단, 특히 가족에서의 미분화된 생활을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언제나 가족의 일원으로서가 아니면 가장(家長)의 충실한 예속 자로서의 생활을 강조한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난 그들이 사회 생활을 하면서 형성한 집단 역시 필연적으로 그 성원이 집단에서 미분화될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갖는다. 이들은 가령 자기가 소속한 집단이나 집단의 리더가 자기의 이념과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위를 할지라도 각 성원은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한국의 집단문화는 수치 중심주의의 특색을 보이는 것 같다. 일상생활에서 조화를 중시하는 한국의 집단주의 사고방식이 호칭, 단어, 전해오는 말과 한국속담 등에서 반영되는데 대표적인 예는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표-5>집단주의를 나타내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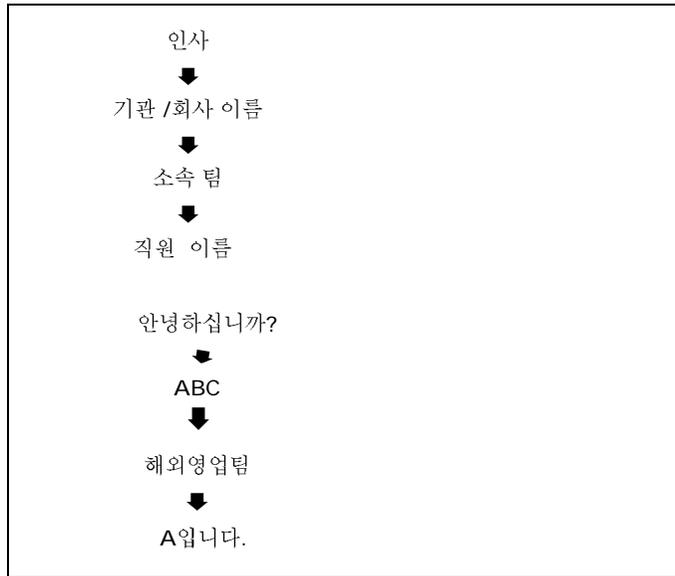
집단 문화 관련 호칭/단어	
우리, 민촌, 반촌 사람, 우리 마을, 우리 학교, 눈치, 반국가적, 반사회적, 반민족적, 수치심, 체면, 끼리끼리 아릅아릅, 오손도손, 연줄연줄 <sup>21</sup> 등.	
집단 문화 관련 말	속담
남의 이목이 두렵다	가재는 게 편이다
체면을 손상하지 않도록	종이도 네 귀를 들어야 바르다
얼굴에 똥칠할까 염려된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창피하지도 않니?	동냥 자루도 마주 빌려야 들어간다
남 부끄럽지도 않니?	열에 한 술 밥이 한 그릇 푼푼하다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	원님 덕에 나팔 분다
이런 애는 우리 집에서 필요 없으니 데리고 가시오	두 손뼉이 울어야 소리가 난다
왕따 당한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세상 사람 다 그런데 당신 혼자 고집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모기 소리도 모이면 천둥소리 난다
네 이놈 성을 같 놈 같으니”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객사할 놈	손이 많으면 일도 쉽다

이 외에도 조직생활의 문화에서 전화를 걸거나 받을 경우, 회사 혹은 기관의 이름을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에 부서와 맨 마지막의 자기 이름 순으

<sup>20</sup>최준식(1997), 『한국인에게 문화는 있는가』, 서울: 사계절, 36 쪽.

<sup>21</sup>천소영(2007), 『우리 말의 문화 찾기』, 서울: 한국문화사, 116 쪽.

로 말하는 경향이 있다. 예:



즉 이러한 한국사회의 현상은 개인의 존재보다 집단의 존재성이 우월주의로 여겨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사회에서의 한 개인의 성공 기준은 사회에서 그를 알아주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사회의 구성단위가 개인이 아닌 집단이 바탕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남이 웃는 일, 창피를 당하는 일, 수치라고 생각되는 일을 가장 기피한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거의 무의식적으로 사용하지만 ‘죄스럽다’ ‘죄송하다’ 라는 말이 있다. 그 심층에는 부끄러움이나 죄의식이 깔려 있다. 한국의 집단문화에서 주요한 가치는 내 집단 강조, 눈치 고려, 조화, 수치심, 체면, 고맥락적 의사소통과 집단의 이익이 중요시 된다. 이러한 의식을 내포한 한국어의 개념적 사용은 모든 영역에서 발견할 수 있다.

### 서열문화와 한국어

한국에는 ‘찬 물도 위 아래가 있다’ 라는 속담이 있다. 언제부터 이 말을 빈번하게 사용하였는지 그 유래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 조선시대의 엄격한 신분제도에서 유래했을 것으로 사료가 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갑오경장(甲午更張)<sup>22</sup>으로 신분제도가 청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계된 용어들을 유사신분관계에다 그대로 적용되었다. 이 때문에 존비어체계에 따른 차별적 표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론된다. 상하 간을 구분하는

<sup>22</sup>갑오경장은 고종 31년(19세기 말)추진되었던 일련의 개혁운동이다.

언어 표현은 다른 무엇보다도 어른·아이, 상사·부하, 선배·후배 등의 유사신분관계에서 잘 드러난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일상어에 드러나는 언어적 규범은 유교사상의 차등적 윤리에서 확대된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한국인들이 대화를 시작할 때, 곧바로 아래 위를 따지거나 직·간접적으로 상대방의 나이, 출생지나 향렬부터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경우이다. 나이를 확인하여 서열을 정하는 기준은 아주 자연스러우며 향렬에 따라 행동을 취하는 것은 형식적이지만 그 방법도 나이에 따라 다르다. 그것의 대표적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표-6>나이를 확인하는 법

직접적	간접적	나이 우월주의 말
몇 살이세요 ?	몇학년 몇 반이세요?	너 몇살이나?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어떤 세대세요?	난 몇 살인지 알아?
아직 젊어 보이네요	나이를 물어봐도 되지요?	나에게는 너만한 아들이 있어.
88올림픽 때 태어났나?	무슨 학번이세요	나이는 경험이야
첫 돌잔치는 언제였지?	무슨 띠세요?	노인들은 왜 이래?
생일은 언제야?	애가 몇 살이세요?	노인들은 줌...
호랑이 띠세요?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어르신분이라...
		아저씨처럼 보이잖아
		할아버지들 스타일인데...

한국문화에서 나이를 확인하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서열을 정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윗사람에게는 그만큼 대접도 잘 받으려는 욕구도 숨어 있다. 그러한 의식은 아주 오래된 것으로서 유교에서 공자와 맹자가 중요시한 덕목인 ‘효’, ‘충’ 과 ‘오륜’ 에서 잘 나타나 있다. 특히 오륜의 다섯 가지 실천 항목 가운데 장유유서는 서열을 중시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한국어로 진행되는 한국의 토론 문화에서도 서열을 중시하는 영향으로 인해 상하 간에 맞는 언어와 어법을 사용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다른 나라의 언어 사용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 예를 들면 나이나 서열이 동등하지 않을 경우에 한국어에서 ‘나’ 와 ‘너’ 를 대등하게 부를 수 있는 호칭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어에서 ‘나’ 대신 ‘저’ 가 있고 ‘너’ 대신 ‘당신’ 을 사용하는데 그것도 자신과 상대를 가리킬 수 있는 일반 호칭이

아니라, 서열에 따라 높이거나 낮추어 일컫는 말에 속한다.<sup>23</sup> 또한 학교나 대학 내에서도 학생들은 서열에 따라 자신을 낮추거나 높여서 상대를 부른다. 외국인이 보았을 때 서열과 직위에 따라 호칭을 달리 하는 것이 매우 복잡하다. 그렇지만 한국 학생들은 전혀 복잡하게 느끼지 않는다. 교수와 학생이 만나는 경우에도 교수는 자신을 ‘나’ 라고 부르며, 학생은 교수를 ‘교수님’ 이라고 부르며 교수는 “나는 요즘 감기가 걸렸는데 자네는 별일 없지?” 라고 하면 학생은 “네 교수님,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는 식으로 대답한다. 이러한 대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어에는 윗사람과 대화할 때 자신을 낮추어 권위를 존중해 주는 언어예절이 상당부분 담겨 있다. 조직 내에서도 만약 입사 동기의 부하가 되거나 상사가 되는 경우에서 적절히 호칭을 사용해야 된다. 예를 들어 같은 사원으로 지낼 때에는 “같이 밥 먹으러 가자” 라는 표현을 썼다면 직위의 변함으로 “과장님 식사하러 갈까요?” 라는 표현으로 바뀐다. 한국의 조직문화에서 쓰이는 한국 회사의 ‘안’ 씨 성을 ‘안재경’ 이란 한 대리의 예를 통해 호칭을 아래의 다양한 등급으로 나눌 수 있다.

<표-7>호칭의 14 가지의 등급

대리님	재경아	안 군
안 대리님	재경 형	재경 군
안 대리	안 씨	안재경
안재경 씨	안 형	재경
재경 씨	안재경 군	

조직문화에서에서도 윗자리 사람들은 다 사장님, 부장님, 과장님, 대리님까지도 ‘님’ 자라는 호칭을 붙이는데 ‘사원’ 은 그냥 사원이며 ‘님’ 자를 붙이지 않은 현상을 보면 한국사회에서 유교의 영향을 받은 권위주의가 얼마나 강한지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나이와 지위에 관한 차등적 대화법과 그에 따라 달라지는 한국어 사용의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더 나아가 남녀간의 서열에서도 표출되는 한국어에 대한 언급도 빼 놓을 수 없다. 유교적인 영향으로 남녀가 유별하다는 것을 ‘오륜’ 의 덕목으로 새겼을 정도인데다 조선 시대 때 엄격하였던 가부장제도와 남존여비 사상의 전통은 여전히 한국어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한국어 혹은 한국속담 위주로 여성비하와 관련이 있는 대표적인 표현들을 정리해 보았다.

<sup>23</sup>최봉영(2004), 「한국사회에서 존비어체계와 유사신분관계」, 『후기사회학대회』, 99쪽.

&lt;표-8&gt;여성비하 관련 말

여성비하 표현	여성관련 한국속담
여자는 왜 이래?/김여사 운전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여자가 하면 안 되는데	여편네 팔자는 뒤옹박 팔자라.
넌 여자라서 약하잖아	여자가 사흘을 안 때리면 여우가 된다.
여자가 그걸 어떻게 해	여자의 마음은 하루에도 열두 번 변하다.
여자는 좀 약하잖아	여자가 셋만 모이면 접시를 뒤집어 놓는다.
너는 남자잖아	여인을 돌면 버리고, 기구는 빌리면 깨진다.
남자는 강하지	여자는 제 고을 장날을 몰라야 필자가 좋다

현대의 한국사회는 사회계급이나 성별에 따른 호칭의 차별이 과거 양반과 상민의 구분처럼 엄격하지 않다. 그렇지만 아주 사라진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도 여성을 부르는 호칭을 낮게 쓰는 경향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누나, 언니, 아줌마, 미스, 아가씨, 당신, 그쪽 등으로 세분화되어 사용된다.

&lt;표-9&gt;존비어체계의 예

존비어체계	예
‘(으)시’의 사용	잡수시다, 주무시다, 계시다
‘님’의 사용	고객님, 회원님, 박사님, 공주님, 교수님, 선생님, 부장님 등
명사, 대명사, 동사, 주격조사 등의 높임말/존댓말.	진지, 연세, 당신, 드시다, 잡수시다, 께서, 께옵서 등
‘께서’의 사용	교수님께서, 선생님께서, 고객님께서
‘께’의 사용(객체일 때 자연스럽게 쓰임)	부장님께, 어머님께, 선생님께, 교수님께

#### 4.1 한국어의 존칭 체계

한국어는 의사소통의 중요한 수단이며, 이를 통해 한국문화를 표현한다. 한국문화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서 유교사상적 정서의 영향이 강하듯 그와 관련된 표현은 한국어에서도 강하게 드러난다. 외국인의 입장에서 상하 간에 호칭과 어법을 달리 사용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일이다. 호칭이나 경어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어려움도 매우 크다. 예를 들면 한국어에서 ‘먹다’란 동사는 ‘먹다/드시다/잡수시다’ 등 대상에 따라 세 가지로 다르게 쓰인다.<sup>24</sup> 영어는 그냥 “Have you taken breakfast?, Have you eaten breakfast?, Did you have breakfast?”으로 상대가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have/take/eat의 동사를 문법적으로 시제에 맞게 쓰면 된다. 즉 한국어는

<sup>24</sup>최준식(1997), 『한국인에게 문화는 있는가』, 서울: 사계절, 177 쪽.

상대에 따라 상하를 고려하여 동사의 형태와 문형을 바꾸어 써야만 한다. 먹다, 먹어, 먹게, 먹게나, 먹어요, 먹으시지요, 먹으오, 먹으십시오, 드시죠, 드세요, 드십시오, 잡수시죠, (세요, 십시오), 식사하시죠 (하세요, 하십시오.)가 있고, 또 상대를 비하하는 비속어로 처먹어라는 표현까지 등장할 수 있다. 동사를 높여서 쓰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데리고 가다’는 ‘모시고 가다’, ‘묻다’는 ‘여쭙다’, ‘있다’는 ‘계시다’ 등을 들 수 있다. 명사를 높여 쓰는 예로는 ‘밥’을 ‘진지’로 사용하거나 ‘나이’를 ‘연세’로 바꾸어야 한다. 한국어에는 이런 예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또한 한국어로 진행되는 토론문화에서도 한국어는 서열을 중시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정의로운 토론의 장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지경이다.<sup>25</sup> 학교나 대학교에서 학생들은 교수나 선배 앞에서 무조건 자신을 낮춰서 표현을 한다. 한국 사회가 언어를 통해 이처럼 서열을 중시하는 것은 결국 유교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 결론

지금까지 한국어에 나타난 유교문화적 요소를 고찰해 보았다. 그 결과 한국어의 다양한 영역에서 유교 문화적 양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유교는 실질적으로 한국인의 가치관과 한국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이다. 특히 가족·집단·서열문화의 유교문화가 중점적으로 나타난다. 연령, 성별, 신분, 계층, 거주지 등과 관련된 요소에서 유교적 언어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합리적인 관계를 저해하는 요소로 지나친 서열주의를 들 수 있다. 한국어 가운데에도 이러한 영향이 보인다. 한국어에는 유교문화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 유교문화의 영향을 받은 표현들은 개인 차원이든 집단 차원이든 거의 모든 영역에서 경험할 수가 있다.

한국문화는 한국어의 거주지이다. 한국문화라는 거주지 속에서 의식주에 해당하는 물질적인 것을 비롯하여 사상적인 요소 등을 잘 드러내는 것이 한국어이다. 언어는 인간과 인간의 의사표현을 돕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도구이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한국어는 한국문화를 계승 발전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다. 또한 한국어의 언어규칙은 한국인의 사고 체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므로 한국어의 특성을 이해하고, 한

<sup>25</sup>박영목, 한국어교육학회(2005), 『국어교육론: 한국어교육학회창립 50주년기념: 국어교육의 역사와 전망』 서울: 한국문화사, 156쪽

국의 유교문화적 특질을 함께 밝히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 더욱 한국어와 유교문화적 요소에 관한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가 모색되길 기대한다.

## 참고문헌

### 연구논문

- 강구율(2010), 「선비문화」, 『남명학연구원』, 18 권.
- 김태만(2000), 「유가의 가족주의와 아시아의 근대화」, 『대구사학』, 제 61 집, 대구사학회.
- 박영순(2003), 「한국어교육으로서의 문화교육에 대하여」, 『이중언어학』, 제 23 호.
- 이효정(2007), 「속담을 활용한 한국어 문화 교육 방안」,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무학(2006), 「선진(先秦) 유가의 오류와 부자 윤리」, 『동양철학연구회』, 47 권.
- 손미정(2010), 「한국 문화 교육의 실태 및 지도 방안: 유교 문화를 중심으로」, 교육학석사학위논문.
- 주명애(2011), 「유교문화와 한국어」, 『한중인문학연구』, Vol. 32.
- 최봉영(2004), 「한국사회에서 준비어체계와 유사신분관계」, 『후기사회학대회』.
- 황한영(2013), 「유교 문화가 성씨·이름에 끼친 영향 연구」, 『한남어문학회』, 제 37 집.
- Joh Jong-ho(2002), 「A dilemma in Moral Educ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limitation of Individualistic Cognitive Approaches」, Journal of Moral Education Volume 31.
- Seung B. Kye (2008), 「Confucian Perspectives on Egalitarian Thought in Traditional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vol. 12

### 단행본

- 고영근(1996), 『우리 언어 문화의 뿌리를 찾아서』, 한신문화사.
- 국제한국학회(1999), 『우리 속담 연구』, 일지사.
- 김태길(1973), 『한국인의 가치관』, 일조각.
- 금장태(2001), 『한국 유교의 이해』, 한국학술정보(주).
- 나은영 외(2013), 『한국인은 누구인가: 38가지 코드로 읽는 우리의 정체』

성』, 21세기북스.

- 박성창 외(2014), 『한국문화30강』, 박이정.
- 박영순(2006),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문화론』, 한림출판사.
- 심재기(2009), 『한국어 우리말 우리글 우리말 바로 쓰기』, 제이앤씨.
- 李光奎(1998), 『한국 가족의 사회인류학』, 서울: 집문당.
- 이상억(2008), 『한국어와 한국문화』, 서울: SOTONG출판사.
- 임희섭 외(2002), 『한국의 종교와 문화』, 나남출판.
- 유성선(2010), 『종교와 문화』, 춘천: 강원대학교출판부.
- 왕한석(2008), 『한국어와 한국사회』, 서울: 교문사.
- 최재석(2009), 『한국의 가족과 사회』, 서울: 경인문화사.
- 최봉영(2005), 『한국 사회의 차별과 억압』, 지식산업사.
- 천소영(2007), 『우리 말의 문화 찾기』, 서울: 한국문화사.
- 천소영(2005), 『한국어와 한국문화』, 서울: 우리책.
- 최기호 외(2010), 『한국어의 역사와 문화』, 서울: 박이정.
- 최재석(1965),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민음사.
- 최준식(1997), 『한국인에게 문화는 있는가』, 서울: 사계절.
- 최준식(2000), 『한국인에게 문화가 없다고?』, 서울: 사계절.
- 최창렬(1999), 『우리 속담 연구』, 일지사.
- 함재봉(2002), 한국인의 가치형성과 정치문화, 『한국의 문화변동과 가치관』 나남출판.
- Chang-t'ae Kūm (2006), 『Confucianism and Korean Thoughts』, 지문당.
- Ho-min Sohn (2006), 『Korean Language in Culture And Society』, University of Hawaii Press.
- Jae Jung Song (2006), 『The Korean Language: Structure, Use and Context』, Routledge.
- Kyong Ju Kim (2007), 『The Development of Modern South Korea: State Formation, Capitalist Development and National Identity』, Routledge.
- Lucien Brown (2011), 『Korean Honorifics and Politeness in Second Language Learning』, John Benjamins Publishing.

#### 인터넷 사이트 검색:

국립국어원 공식 웹사이트 <http://www.korean.go.kr/>

江原日報, 2008-5-28 일자, 6면.(2015년 5월 10일 검색)